



작가미상 '빛을 구하는 사람-최승희'

# “메세나는 큰 보람, 함께 나누면 행복이 커집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재일 이주노동자의 아들은 빈곤한 집안 형편에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화가 대신에 미술품 수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고국에 1만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했다.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의 컬렉션은 전국의 미술관에서 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전국시립미술관네트워크 하정웅컬렉션특선전'을 통해서다. 지난 4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테이프를 담은 이번 전시는 부산, 포항, 전북, 제주, 대전 그리고 오는 2015년 대구시립미술관까지 3년간 전국을 순회한다.

광주 전시(7월21일까지)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재일교포 하정웅(73·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씨는 그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된 제 발걸음과 힘겨운 삶을 살다간 재일교포의 바램이 광주와 제 부모님의 고향 영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품을 모으지 않았다면 이 길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939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일본에서 한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과 차별을 그대로 보고 자랐다. 그

## 전국에 1만여점 기증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 '하정웅컬렉션' 3년간 전국투어... 7월21일까지 광주 전시 화가 꿈 접고 수집가의 길로... 미술에는 치유의 힘 있어

일본사회의 차별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도쿄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기도 했다.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재일교포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재일교포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포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조직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씨는 1964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 가전제품상을 열었다.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컬러TV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는 사업가로 성공,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

“화랑에서 우연히 전화황씨의 '미륵보살'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빈곤과 차별로 쌓인 울분이 가라앉더군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어머니의 존재와 같아서 단박에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이 '미륵보살'에서 받았던 치유와 구원의 세계를 다른 재일교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미술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 재일교포 작가들이 시대와 인간의 삶을 기록한 작품을 중심으로 컬렉션에 나섰다. 재일교포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었던 그만의 방법이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제 컬렉션이 어둡고, 무섭다고. 재일교포의 삶은 공감하고 어두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작품에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것이고요. 제 미술품 수집 철학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1993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 미술품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내 미술관과 박물관에 모두 1만여 점의 미술품과 역사적 자료를 기증했다.

“메세나는 보람입니다. 함께 나누면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메세나의 가치를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메세나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도 모두 메세나입니다. '노당당'(露堂堂)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화황 작 '미륵보살'

## 광주·전남소설가協 30일 문학기행

광주·전남소설가협회는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반기 문학기행을 실시한다.

이번 문학기행은 오는 30일 '문학의 산실을 찾아서: 소설가 박화성, 극작가 차범석, 평론가 김현, 문인 임백호의 고향 목포'를 주제로 열린다.

오전 9시 30분 5·18문화관 주차장에 집결해 목포해양박물관, 목포문학관, 나주 백호문학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선착순 20인에 참가비는 1만원.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화성



차범석

## 월간 **예향** 7월호

올 여름 당신의 휴가는?  
클라우드 펀딩, 희망을 본다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 7월호가 나왔다. 206쪽 분량으로 발간된 7월호에는 커버 스토리 '올 여름 당신의 휴가는?'과 기획특집 '클라우드 펀딩, 희망을 본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돼 있다.

커버 스토리는 '길 위의 침포, 제주 올레길', '광주·전남 치유의 길과 숲', '산사에서 참 나를 묻다, 톱플레이어', '돌·바람·낭만충전, 쿨한 여름축제'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바캉스를 소개한다.

기획특집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실시된 투자를 받아 영화·공연 예술작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26년'과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변화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조명하고 지역에서 오픈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셜펀딩 사이트 '마이팀'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치유의 길, 희망을 개척한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만나

보고, '마주앉은 책과 삶'은 소나무 사진작가로 유명한 배병우씨로부터 그가 어떻게 부파인더 너머의 피사체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읽어내는지 들어왔다. 또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를 이달의 아티스트로 초대해 그가 추구하는 예술과 미래 포부를 그렸다.

7월호부터 새로 연재되는 '스타데이트' 첫 게스트로 광주 출신의 '국민 첫사랑' 수지를 만나보고,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과 함께하는 '우리 땅 속삭여 여행' 첫 코너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땅끝' 해남을 찾아가다.

'예향이 만난 이사장'에서는 지난 2년의 부진을 벗고 재비상을 꿈꾸는 KIA타이거즈 좌완에이스 양현종의 우승을 향한 다부진 포부를 들어보고, 국내 첫 '하우즈 콘서트' 창시자 박창수 대표를 만나 올해 그가 계획하고 있는 '7월12일 프



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

매일 수확의 계절에 찾아가는 광양 홍쌍리 청매실농원의 여름 풍경과 매실을 이용한 요리를 배워보고, 리빙&스타일에서는 전문가에게 배우보는 베란다 한평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소나무·금강산·독도... 그림같은 풍경

구본창 사진전 다음달 7일까지 제희갤러리



'금강산'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구본창(60) 경

일대 교수의 풍경들이 광주를 찾았다.

제희갤러리는 다음달 7일까지 구본창 교수를 초대해 '풍경의 해석'전을 연다.

소나무, 금강산, 독도, 숲, 안면도 등 풍경을 구 교수가 몽롱한 동양화풍으로 재해석한 사진 24점이 전시되고 있다.

구 교수는 한국의 현대사진을 정착시킨 대표적인 예술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30여년 동안 매년 사물을 새롭게 해석한 창의적

인 작품을 선보여왔다.

구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으며,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와 박건희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과 일본 코야마 갤러리 등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국내외를 오가며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2-93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